

Haesun Paik

Piano Recital





2019 글로벌고객만족역량 조사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부문 1위 대한항공

중국 강남 4대 누각 성황각
City God Pavilion, 城隍閣



杭州 [항저우]

인간과 자연이 함께 만든 최고의 작품을 만나다

대한항공 중국 항저우 주 2회 운항
중국의 10대 명승지 서호를 품은 항저우로 모십니다



www.koreanair.com



Haesun Paik Piano Recital

백혜선
세계무대 데뷔 30주년 기념

2019년 12월 8일 (일) 오후 5시

롯데콘서트홀

5PM Sunday, Decemember 8, 2019

LOTTE Concert Hall

피아니스트, 백혜선

Pianist, Haesun Paik

주최 **CREDIA MUSIC & ARTISTS**

후원 **KOREAN AIR** 50 with**SUN**

베토벤 1770-1827 피아노 소나타 제28번 가장조, 작품번호 101 20'
독일

L. v. Beethoven Piano Sonata No. 28 in A Major, Op. 101

제1악장 Allegro ma non troppo
제2악장 Vivace alla marcia
제3악장 Introduction-Adagio ma non troppo
제4악장 Allegro

베토벤 1770-1827 피아노 소나타 제31번 내림가장조, 작품번호 110 20'
독일

L. v. Beethoven Piano Sonata No. 31 in Ab Major, Op. 110

제1악장 Moderato Cantabile Molto Espressivo
제2악장 Allegro molto
제3악장 Adagio ma non troppo
Fugue : Allegro ma non troppo

CREEDIA

I N T E R M I S S I O N

베토벤 1770-1827 피아노 소나타 제32번 다단조, 작품번호 111 30'
독일

L. v. Beethoven Piano Sonata No. 32 in c minor, Op. 111

제1악장 Maestoso - Allegro con brio ed appassionato
제2악장 Arietta: Adagio molto semplice e cantabile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ORFEO

More than Cinema

음악을 보다, 영화를 듣다



오르페오 예약문의



BARCO

STEINWAY LYGNDORF

UNITEL

베토벤 최후의 소나타들

루트비히 판 베토벤(1770-1827)의 마지막 다섯 개의 소나타들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이들은 외적인 강인함으로 무장된 독립된 작품이었던 과거의 소나타들과는 달리, 다섯 곡 전체가 내적인 움직임 따라 연작처럼 작곡되었기 때문이다. 베토벤이 삶에 대한 투쟁에서 내면의 안식으로 돌아선 이유는 무엇일까? 그를 괴롭히던 꺾병은 40대 후반으로 접어들어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으며, 1818년에는 보청기도 필요 없을 정도로 들리지 않아 필답으로만 소통이 가능했다. 더 이상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그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최후의 소나타들은 그가 우리에게 전하는 자신의 마음의 소리였다.

“마지막 시기의 작품들은 내면적인 요구로 흐름이 만들어졌다. 모든 것은 앞선 작품으로부터 유기적으로 따라간다... 각 작품들은 의미와 연관 관계가 있고 전체가 하나로 묶인다. 열매는 꽃에서 나고, 꽃은 성장하는 나무로부터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자연과 예술에서의 신비로운 생명의 법칙이다.”
(요한 알로이스 슈로서)

루트비히 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28번 가장조,
작품번호 101

Ludwig van Beethoven

Piano Sonata No. 28
in A Major, Op. 101

최후의 소나타들 중 첫 곡인 <피아노 소나타 28번>은 1816년 11월에 완성되었다. 이 작품은 격정적인 갈등과 투쟁을 그리던 중기 소나타들과는 달리, 확연하게 섬세하고 내면적이며 자유롭다. 속세를 등지고 세상의 갈등을 달관하며 초연한 듯하다.

이듬해 2월에 출판하면서 베토벤은 헌정자의 이름을 ‘도로테아 폰 에르트만’이라고 적었다. 도로테아는 베토벤의 제자로, 베토벤뿐만 아니라 멘델스존도 격찬했던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였다. 그리고 베토벤의 ‘불멸의 연인’의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1817년 2월 23일, 베토벤은 도로테아에게 편지를 보냈다. “예전부터 당신에게 헌정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의 천재적인 예술성과 인격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입니다.” 이 시기에 아들을 잃은 그녀를 위해 베토벤이 직접 이 곡을 연주해주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1악장에는 구체적인 지시어가 적혀있다. “다소 생기 있게 그리고 내면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지시어가 독일어로 적혀있는 것은 세심한 감성 표현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탈리아어 빠르기말은 이보다 작게 병기되어있다. “조금 빠르게, 그러나 지나치지 않게.” 조용하고 감상적인 첫 악장은 <소나타 13번 ‘환상곡풍으로’>(1801)의 재현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28번은 이보다 더욱 깊은 정서적 깊이가 있다. 오르내리는 첫 여섯 마디의 제1주제가 전체의 서정적 감성을 지배하며,

왼손과 오른손이 주고받는 제2주제는 정서적으로 대조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2악장에도 독일어 지시어가 적혀있다. “생기 있게. 적당히 행진곡 스타일로.” 그리고 이탈리아어 지시어도 병기되어있다. “행진곡 스타일로 생기 있게 빠르게.” 하지만 일반적인 행진곡과는 달리 부점리듬이 지배하며, 분위기는 다소 고조되지만 지나치지 않는다. 중간 부분은 간단한 대위법으로 진행하며, 다시 첫 부분이 반복된다.

3악장은 “느리게 그리고 그리워하며”라는 독일어 지시어와 “느리게, 그러나 지나치지 않게, 감정을 실어서”라는 이탈리아어 지시어가 적혀있다. 마치 꿈속처럼 손에 잡힐 듯 말 듯 아른거리는 고음주제와 장식적인 단편이 이끌어 가며, 간간히 화음 반주가 더해진다. 카덴차가 등장한 후 1악장 주제가 잠시 연주되고, 트릴과 함께 쉽 없이 다음 악장으로 연결된다.

4악장 피날레는 소나타 형식으로, “민첩하게, 그러나 결연하지 않게” 그리고 “빠르게”로 지시되어있다. 이 악장은 대위적인 진행에 집착하며, 중간에 4성 푸가가 잠깐 등장하기도 한다. 이렇게 마지막 악장에서 대위법을 사용하는 것은 베토벤 후기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31번 내림가장조,
작품번호 110

Ludwig van Beethoven

Piano Sonata No. 31
in Ab Major, Op. 110

최후의 두 소나타의 공통된 주제는 ‘노래’이다. <소나타 31번>(1821-22)의 1악장은 ‘노래하듯이’라는 의미의 ‘칸타빌레’이며, 3악장은 ‘레치타티보’에 이어 ‘탄식의 노래’가 등장한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작곡하여 쌍둥이와 같은 <소나타 32번>(1821-22)의 2악장에는 ‘작은 아리아’라는 의미의 ‘아리에타’라고 적혀있다.

그렇다면 <소나타 31번>의 노래는 어떠한 의미일까? 혹시 1822년 여름에 출판된 악보에서 베토벤이 거의 빠짐없이 적었던 헌정자가 유독 이 곡에만 빠져있는 이유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베토벤이 그의 제자이자 비서였던 안톤 쉰틀러에게 보낸 1822년 2월 18일자 편지에는 31번과 32번 두 소나타를 안토니 브렌타노에게 헌정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브렌타노! 그녀 또한 베토벤의 ‘불멸의 연인’으로 생각되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1798년에 결혼하여 다섯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혹시 다가갈 수 없는 연인에 대한 사랑의 아픔을 노래한 것은 아니었을까? 베토벤은 헌정자를 표기하지 않을 정도로 이를 숨겨야 했던 것일까?

1악장 ‘보통 빠르게로, 노래하듯이, 매우 표현적으로’: 곡의 시작과 함께 아름다운 선율이 등장하며, 단순한 화음 반주가 더해져 소박하고 순수한 마음을 표현한다. 이윽고 선율이 펼친화음(아르페지오)로 발전하여 화려하고 자유롭게 노닌다. 빠르게 고조된 후 상승하는 고음과 하강하는 저음이 빠르게 교대하며 진행되는 귀여운 제2주제가 등장한다. 하지만 이 두 주제는 대조되지 않고 정서가 비슷

하기 때문에, 소나타 구조가 확연히 파악되지 않는다. 운명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쫓아오는 듯한 저음의 움직임은 바탕으로 진지한 선율이 잠시 등장하지만, 다시 본래의 밝고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온다.

2악장 ‘매우 빠르게’: 스케르초로서, 율동적인 화음 진행을 가진 첫 주제를 제시한다. 이 주제는 첫 네 마디는 조용히, 다음 네 마디는 크게 연주하여 다이내믹의 대조를 통해 극적인 표현을 들려준다. 중간 부분은 빠르게 지그재그로 하강하는 진행을 다섯 번 반복한다. 그리고 첫 부분을 다시 반복하고 마무리한다.

3악장 ‘느리게, 지나치지 않게’: 슬픔을 한껏 머금은 서주를 조용히 연주한다. 짧지만 다양한 표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처음부터 상승하는 펼친화음으로 ‘레치타티보’의 시작을 알린다. 마디선이 없는 이 부분에는 다양한 지시가 적혀있어, 즉흥적이면서 실재 말하는 듯한 효과를 꾀한다. 특히 마지막 네 음은 바흐의 수난곡 중 복음사가의 레치타티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무리이다. 그리고 ‘탄식의 노래’로 이어진다. 이 또한 바흐의 <요한 수난곡> 중 예수의 죽음을 애도하는 알토의 아리아 ‘다 이루었다’가 연상된다. 예수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레치타티보와 아리아는, 사랑의 죽음과 그 슬픔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

사실 3악장의 본론은 ‘빠르게, 지나치지 않게’ 부분부터이다. 이 부분은 3성 푸가로서, 처음에서 지그재그로 상승하는 주제가 먼저 제시된 후, 음역을 올리면서 성부를 쌓아간다. 점차 고조되면서 자유롭게 발전하여 클라이막스에 이르면, 다시 탄식의 노래가 들린다. 악보에는 이 부분에 “슬픔에 지치다”라고 적혀있다. 이 부분에서는 ‘탄식의 노래’가 앞부분처럼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고 짧은 심표로 끊겨 숨을 헐떡거리듯 진행한다. 그러다 화음이 점점 크게 연주되고 상승하는 펼친화음이 연주되면, 또 다시 푸가가 시작된다. 이 부분에는 “점차 생기 있게”라고 적혀있다. 마지막에는 푸가에서 벗어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화려하게 마무리한다. 사랑의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베토벤의 의지가 이 마지막 푸가에 깃들어있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32번 다단조,
작품번호 111

Ludwig van Beethoven
Piano Sonata No. 32
in c minor, Op. 111

베토벤의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인 <소나타 32번>(1821-22)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악장 수가 단 두 개뿐이라는 점이다. 신틸러가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베토벤은 “시간이 없어서”라고 답했다고 하는데, 이 대답은 그저 핑계였을 것이다. 정신의 해방과 내면의 안식을 이룬 뒤에 무엇이 더 올 수 있을까? 우선 1악장에 ‘다단조’와 ‘Allegro con brio’(빠르게 생기 있게)라는 지시가 번뜩 연상시키는 작품이 있다. 바로 <운명 교향곡>과 <비창 소나타>로, 이 악장이 웅장하고 영웅적이면서도 숙명적이고 비극적임을 의미한다. 2악장은 정신적인 초월이자 안식이다. 즉, <소나타 31번> 3악장의 ‘탄식의 노래’가 죽음에

대한 애가라면, 2악장의 ‘아리에타’는 죽음 이후의 평화와 안식의 노래이다.

이 곡의 헌정자는 루돌프 대공이었다. 베토벤은 <소나타 31번>과 함께 안토니 브렌타노에게 헌정할 생각이었지만, 헌정자 선정을 출판사인 슐레징거에게 일임했다. 그래서 출판사는 베토벤의 제자이자 후원자였던 루돌프 대공을 선정했고, 이에 베토벤은 1822년 7월 1일 루돌프 대공에게 “대공께서 다단조 소나타를 마음에 들어 하시므로, 대공께 헌정하는 것이 결례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는 편지를 썼다. 하지만 이듬해 초 베토벤은 헌정자를 브렌타노로 바꾸고 싶어 했고, 출판사는 이미 대공과 맺어진 사항을 바꿀 수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런던에서 이보다 늦게 출판된 악보에는 헌정자가 브렌타노로 기재되어 있다. 베토벤은 ‘아리에타’를 통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피안의 세계에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전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1악장 ‘장중하게-빠르게 생기 있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비극적인 운명을 지닌 영웅에 대한 서주가 곡의 시작을 알린다. 장중하고 강렬한 화음, 심연에서 이끌어오는 듯한 아르페지오, 영혼을 울리는 부절리듬, 점차 사그러드는 결말 등, 마치 전장에 나서는 용사의 신탁(神託)을 듣는 것 같다. 이 서주는 <비창 소나타>의 시작 부분과 유사하다. 그리고 첫 주제가 매우 크고 영웅적으로 제시되고, 곧 대위법으로 발전한다. 대단원에 이르면 크게 도약한 후 하강하는 제2주제가 조용하게 등장한다. 이 주제가 다양하게 변주되고 1주제가 재등장하여 대단원에 이르러 제시부를 마친다. 발전부는 1주제가 푸가로 발전되며, 재현부에서는 두 주제를 옥타브 병행으로 재현하여 더욱 풍부한 음향을 만든다. 그리고 코다에 이르러 조용하게 마친다. 진지하고 격렬한 주제를 생각할 때 다소 의외의 마무리인데, 왼손 저음은 아직 투쟁을 지속하고 있지만, 오른손의 선율은 이미 다음의 악장의 안식에 들어서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2악장 ‘느리게, 매우 단순하게 그리고 노래하듯이’: 조용하고 평온한 무언가 ‘아리에타’가 제시된다. 지극히 고요하고 평온하며,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꿈속에서 안식을 취한다. 이어지는 다섯 개의 변주들은 베토벤의 매우 정교한 솜씨가 충분히 발휘되어있으며, 점차 관조적이고 초월적인 영역으로 나아간다. 변주곡은 구분되어 표기되어있지 않고 전체가 동일한 템포로 진행하는데, 베토벤은 전체를 하나의 끊임없는 과정으로 이해되기를 바랐던 것 같다.

변주1은 9/16박자로 셋잇단음 리듬의 저음 반주에 절뚝거리는 리듬으로 진행되는 선율을 서정적으로 연주한다. 다섯 개의 변주 전체에서 이 두 리듬은 통일성을 갖게 하는 요소로서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된다. 변주2는 6/16박자로 절뚝거리는 리듬이 보다 강조되면서 선율은 보다 극적으로 변화하고, 변주3은 12/32박자로서 보다 고조되면서 큰 음량과 절뚝거리는 리듬으로 펼친 화음이 화려하고 폭넓게 움직인다. 변주4는 9/16박자로 잔물결이 일렁이듯 빠른 속도로 섬세하고 조용히 움직이는 음들과 조용한 화음 연주가 각각 저음과 고음에서 이루어진 후, 귀를 사로잡는 긴 트릴이 등장한다. 셋잇단음의 리듬으로 잠시 차분해진 후, 변주5로 진입하면 다시 분위기가 고조되며, 같은 박자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반주 위에 주제가 연주된다. 트릴이 코다의 시작을 알리고, 긴 트릴과 함께 주제가 여러 번 반복된 후 조용히 마친다.

글 | 송주호 (음악 칼럼니스트)



피아니스트

백혜선

Haesun Paik

Pianist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혜선은 화려한 스케일, 호쾌한 타건과 기교를 뛰어넘어 심오함과 델리케이트한 서정을 두루 표출하며 음악의 본질에 접근하며 청중이 원하는 것을 탁월하게 조화시켜 감동을 주는 연주자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임용 당시 20년 만의 최연소 교수 임용이라는 화제를 만들면서 10년간 재직했던 서울대 교수 자리를 2005년, 홀연히 박차고 드 넓은 세계로 나아갔던 백혜선은 매년 여름 뉴욕의 한복판에서 열리는 세계 피아니스트들의 축제인 IKIF(International Keyboard Institute & Festival)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해마다 연속 초청되어 독주회를 열었다. 백혜선은 IKIF에서, 메나헴 프레스러, 마크 앙드레 아믈랭, 필립 앙트로몽, 올가 케른 등과 어깨를 겨누며 독주회를 열어오고 있는데 특히 매년 모든 음악회 시리즈를 지켜본 뉴욕의 평론가 도널드 아이슬러에 의해 “백혜선은 열정과 섬세함을 동시에 갖춘 피아니스트로서 악보상의 가장 중요한 것에서부터 가장 최소한의 하찮은 음에 이르기까지 결코 자신을 음악 앞에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음악 속 드라마의 감춰진 모든 것을 드러낸다. 오늘 백혜선은 리스트와 슈만이 한국인으로 착각될 만큼 마치 모국어로 표현하듯 탁월한 해석으로 자연스럽게 낭만음악을 들려주었다. 피아니스트 백혜선의 이름은 더욱 커질 것이라 확신하며 백혜선의 연주회라면 꼭 가봐야 할 음악회” 라는 극찬이 뉴욕타임즈 및 온라인매체 <클래시컬뮤직 가이드포럼>에 게재되었다.

또한 피아노의 거장 블라드미르 펠츠만은 자신이 음악감독으로 있는 피아노 썸머 인 뉴팔츠 페스티벌(Piano summer in New Paltz)에서 페스티벌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피아니스트를 독주자로 지목하는 이변을 낳으며 2010년 여름에 초청, 독주회를 열어 호평을 받았다. 특히 2012년 12월, 뉴욕 링컨센터 앨리스 툴리 홀(Alice Tully)에서의 독주회는 전석 매진과 함께 평단의 찬사를 받았다. 세계 유수의 공연장인 카네기홀, 링컨센터, 케네디 센터, 보스턴의 조단홀과 도쿄 오페라시티홀, 베를린 필 하모닉홀, 비엔나의 뮤직페라인 등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보스턴 심포니, 워싱턴 내셔널 심포니, 뮌헨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 프랑스 국립 라디오 필하모닉,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버밍햄 심포니, 벨지움 심포니, 바르샤바 필하모닉, 모스크바 필하모닉, 뉴저팬 필하모닉, NHK심포니, 도쿄 필하모닉, 오사카 센쥬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아르헨티나 국립교향악단, KBS심포니 등과 협연했고 첼리스트 안너 빌스마, 미샤 마이스키, 비올리스트 노부코 이마이, 클라리네티스트 리차드 스톨츠만 등과 함께 연주했다.

2005년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백혜선은 한국과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에서 꾸준하게 독주회, 협연, 실내악연주를 통해 피아니스트로서의 입지를 넓혀오고 있는데 가장 최근의 연주로는 2016년 교향악축제에서 KBS교향악단과 협연했고, 대구시향과 함께 베를린과 비엔나에서 연주를 가졌으며, 브라질의 상파울로에서 독주회를 가졌다. 2017년 봄, 첼로의 거장 로렌스 레서와 두번째의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 연주로 미국 주요도시 투어와 함께 2018-2019 시즌에는 베토벤의 32개 피아노 소나타 전곡연주와 피아노협주곡 전곡연주시리즈를 했으며, 뉴욕에서도 NYCP(New York Classical Players)와 3년 동안 베토벤 협주곡 전곡 연주 중에 있다. 2019년에는 타이페이, 뉴욕, 보스턴,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독주와 협연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세종문화회관과 롯데콘서트홀 독주회 및 지방 순회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2018년 지나 바카우어 국제 피아노 콩쿠르를 비롯한 클리블랜드국제피아노 콩쿠르, 힐튼헤드 국제피아노 콩쿠르, 캐나다의 호넨스 국제피아노콩쿠르, 뵘젠도르프 국제피아노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미국의 IKIF(인터내셔널 키보드 페스티벌&인스티튜트), 피아노 섬머 인 뉴팰츠, 라디오프랑스페스티벌, 베이징 인터내셔널 뮤직페스티벌&아카데미, 일본의 이시가와 페스티벌, 부산국제음악제 등을 통해 독주회 및 실내악 연주와 전세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스터 클래스를 해오고 있다. 레코딩은 EMI레이블로 솔로 음반 4종을 출시했고 브리지(Bridge) 레이블로 첼리스트 로렌스 레서와 베토벤 첼로소나타 전곡 연주를 출시했다.

대구 태생인 백혜선은 예원학교 2년 재학 중에 도미하여 변화경, 러셀 서면을 사사하며 뉴잉글랜드 음악원 예비학교를 거쳐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받고 1992년 동교에서 아티스트 디플롬 학위를 받았다. 국제 콩쿠르 입상 후 이태리의 레이 코모(Lake Como)에 있는 인터내셔널 피아노 파운데이션의 초청을 받아 알리치아 데 라로차, 칼 울리치 슈나벨, 로잘린 트렉, 알렉시 스바이젠버그 등 세계 최고의 대가들과 함께 공부하며 수많은 연주회를 가졌다.

세계 굴지의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미국 메릴랜드 윌리엄 카펠 국제 콩쿠르에서의 우승 및 리즈 국제 콩쿠르에 입상하여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올해, 2019년 예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인에게 수여하는 제 64회 대한민국예술원상을 수상했다.

현재 뉴욕에 살고 있는 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세계를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보스턴 뉴잉글랜드 음악원 교수 및 대구 가톨릭대학 석좌교수로 후진양성을 하며 부산국제음악제의 예술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빈 필하모닉과 함께 떠나는 유럽 크루즈 10박 12일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 동승하며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 펼쳐지는
음악과 휴식을 함께 하는 꿈 같은 여행.
지상과 선상을 오고 가는 특별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ONLY
클럽발코니 &
씨엘로스

- 여행 일자 : 2020년 9월 19일(토) ~ 30일(수) (10박 12일)
- 여행지 : 마요르카(스페인) - 나폴리(이탈리아) - 팔레르모 - 발레타(몰타) - 산토리니(그리스) - 아테네 - 헤라클리온(크레타)
- 상품가 : 1,680 만원 (현금가, 발코니캐빈 기준)
인천 - 마요르카 왕복 항공료 별도

PROGRAM

- [공연1] 빈 필하모닉 &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협연 : 에피 브론프만)
[공연2] 빈 필하모닉 &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 아테네 헤로도테스 아티쿠스 야외극장
[공연3] 안드레아스 사거 & 리디아 바이흐 리사이틀 / 나폴리 산 카를로 극장
[공연4] 오페라 <코지 판 투테> / 팔레르모 마시모 극장
[공연5] 베이스-바리톤 여원 슈로트 리사이틀 (선상 공연)
[공연6] 알렉세이 이구데스만 바이올린 리사이틀 (선상 공연)
[공연7] 빈 필 체임버 콘서트 (선상 공연)

빈 필하모닉 공개 리허설
연주자와의 만남 및 사인회, 렉처

- * 음악평론가 유정우 전 일정 동행 예정
- * 본 여행일정과 프로그램은 아티스트 또는 현지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안내사항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다양한 기항지와 선상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음악여행
빈 필하모닉과 세계 최정상 아티스트가 함께 하는 선상음악회와 오픈
리허설을 비롯,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산 카를로 극장과 마시모 극장, 고대의
역사와 신비를 간직한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헤로도테스 아티쿠스 야외극장
기항지 콘서트까지 더욱 풍성한 음악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평론가 유정우의 생생한 클래식 이야기
홍부외과 전문의이자 클래식 음악평론가로 활동하는 유정우가 전 일정
동행하며 유럽의 음악, 역사, 그리스 신화를 아우르는 깊고 넓은 지식의 인문학
강의를 생생하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피아니스트 백혜선 인터뷰 30년의 시간

1989년 11월. 뉴욕 링컨센터의 엘리스 텔리홀에 피아니스트 백혜선이 올랐다. 당시 24세 백혜선은 같은 해에 메릴랜드에서 열린 윌리엄 카펠 콩쿠르에서 우승했고 그 부상으로 이 무대를 얻었다. 중학교 2학년에 피아노로 보스턴에 유학 온 백혜선의 첫 콩쿠르, 첫 우승, 첫 정식 무대였다. 객석에는 한국에서 온 백혜선의 아버지가 있었다. 위암으로 투병 중이던 아버지는 공연 후 이렇게 말했다. “하버드 대학 다니는 남자 만나 결혼하라고 보스턴으로 유학 보내놨더니 공연까지 하느냐. 이제 피아노랑 결혼한 걸로 알아야겠구나.”

꼭 30년 전 무대다. 그의 아버지는 3개월 후 돌아가셨다. 백혜선은 날개 단 듯 국제 무대를 누볐다. 리즈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 입상하고 1994년엔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1위 없는 3위에 올랐다. 흐트리지거나 힘 빠지지 않는 건강한 타건을 트레이드마크로 일약 스타로 떠올랐고 같은 해에 서울대 음대 교수로 임용됐다.

그가 서울대에 사직서를 낸 건 2005년. 연주자로 서기 위해서라며 미국으로 떠났다.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백혜선은 지난 30년을 두고 “최정점에 올랐다가 부서지고 다시 올라가곤 했던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누구나 나를 부럽다고 하는 시기에 바로 이어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때가 찾아왔다. 그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은 여지없이 연습이었다”고 했다. “벼랑 끝에 몰려 갑자기 맹렬해지는 생쥐처럼 살아온 30년”의 이야기를 들었다.

데뷔를 기억하나. 화려한 등장이었고 스타 탄생이었다.

“사실 1980년대와 90년대 초에는 외국 무대에 가면 한국인이 아니라 동양인으로도 최초였고 여자는 더 드물었다. 특히 러시아 같은 데에서는 동양 여자가 나오면 청중 중 몇이 한숨을 푹푹 쉬며 공연장을 떠나곤 했다. 그런데 나는 무대에서 왜소해보이지가 않았던 것 같다. 동양의 남자 여자 다 쳐도 키도 큰 편이었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느낌이 있었다.”

지금은 강한 연주자로만 부각되지는 않는다.

“2005년 미국으로 다시 나가기 전에 가끔 이런 말을 들었다. ‘연애 해봤어? 네 음악에는 철철한 애절함이 모자라.’ 나는 애절한데 왜 애절함이 없다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보니 너무 승승장구로 모든 것이 다 잘 됐고 그래서 조화롭게만 잘 쳤던 것 같다.”

그런 조화가 깨지는 경험을 했다.

“서울대 그만두고 미국 가기 전까지 안 가진 게 없는 여자였다. 유명한 피아니스트에, 서울대 교수고, 애도 아들 딸로 잘 낳고, 남편도 교수에다가 부모님 잘 만나서 금전적 어려움도 없었다. 음악하는 학생을 만나면 다들 백혜선처럼 되고 싶다고 했다. 그러다 미국에 딱 나갔는데 나는 완전히 애송이였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그때 마침 혼자 살기로 했고 어머니는 이혼까지 한 딸이니까 쳐다보지도 않았다. 애들도 혼자 키워야 했고.... 어렵고 배고픈 시절이었다.”

어떻게 지냈던 날들로 기억하나.

“연습했다. 사람이 잘 되면 아무래도 나태해진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몸에 익는다. 이런걸 깨는 게 두번이 있었는데 1994년에 차이콥스키 콩쿠르 나갔을 때 하루에 22시간씩 울면서 연습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연주할 수 있도록 죽어라 했다. 그 다음이 미국 다시 나왔을 때다. 처음 5,6년은 연주만 하면서 버텼고 그래서 온갖 신경을 다 연습에 쏟았다.”

왜 그렇게까지 힘들도록 노력했어야 했나.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너무 위로, 또 위로 올려놨다. 차이콥스키 콩쿠르 경력으로 서울대 교수로 간건데, 콩쿠르나 서울대 말고 음악인으로 진짜 인정받을 수 있나 알아보고 싶었다. 내 음악만 들고 연주 다시 들고 싶다 할 수 있을까, 콩쿠르 경력 없이도 어떤 학교에서 교수로 오라고 할 수 있을까 궁금했다. 그래서 딱 10년 걸어봤다. 8년차에 다시 한국으로 다시 갈 집을 싸야되나 말아야되나 하다가 클리블랜드 음대 교수로 임용이 됐다.”

어려서부터 재능이 많고 유명했는데, 얘기를 나눠보면 노력과 시간에 대해 많이 강조하는 편이다.

“재능이 없지는 않지만 남들보다 많지도 않다. 한가지 가진게 있다면 무대 위에서 능력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오는 게 있다. 콩쿠르 가면 ‘나 어떡해, 큰일 났다, 난 죽었다’ 하다가도 무대 위 마지막 순간에 치고 올라오는 게 있다. 생쥐가 절벽에 몰리면 갑자기 칼 꺼내서 휘두르는 느낌이랄까.”

피아노 아니고 다른 일에서도 그런 에너지가 나오나.

“뭐 하나를 맡으면 몸을 불사르는 성격이긴 하다. 원래는 천하태평이고 게으르는데 꼭 해야할 일 앞에서는 물불 안 가리고 완성해놓는다.”

데뷔 30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연습량 많은 피아니스트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연습을 하고도 많이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수십년을 살았던 것 같다. 지금도 보스턴에서 스승을 만나면 연습 안 한 거 들킬 것 같은 마음에 피해다닐 정도다. 뉴욕 아파트에서 살 때는 아이들 재우고 나서 밤 새워 연습하고 아이들 아침에 학교 보낸 다음에 잠깐 자는 생활을 반복했었다. 아들은 ‘연습을 그렇게 해도 아직도 못 하는 거야?’하고 묻는다. 그때마다 ‘그래 아직도 잘 안돼’하면서 연습하러 들어가고 그랬다.”

그 아들이 올해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다고 들었다.

“아들이 입시용 에세이에서 연주 때문에 몇주씩 집을 비우는 엄마 대신 자신이 동생을 돌보고 공부도 혼자 하며 컸다는 이야기를 썼다. 엄청 불쌍한 애가 이렇게 잘 컸구나 하는 걸로 점수를 땀다. 나는 이번에도 연주하러 다니느라 입학식도 못 봤다. 얼마 전 전화로 지금 기숙사 들어간다는 소식만 들었다.”

하버드 대학 보낼 때 엄마가 해준 게 없다는 말인가.

“없을 리가. 개 앞에서 열심히 연습했다. 그리고 가끔 내 연주회에 와서 엄청 유명한 연주자들을 만나면 엄마 대단하다고 했다. 엄마처럼 저렇게 노력을 하면 저런 데 서기도 하는구나 했던 것 같다. 또 아들과 딸을 음악 하는 초등학교에 보냈다. 음악가 만들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음악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연습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 습관을 붙여주려고 한 거였다. 그렇게 매일 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걸 어려서부터 하다보니 애들이 뭔가를 규칙적으로 노력하는 습관이 몸에 익었던 것 같다.”

연주자와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고루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

“나는 진정한 예술가는 아니더라도 진정한 인간인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자주 한다. 연주에 집중한다고 엄마로서의 일을 차단하고 ‘연주자는 이래야돼’ 하는 건 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 이게 나아, 나란 사람은 엄마가 돼도 연주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시간을 쓴다고 생각하게 됐다. 엄마로서의 시간 때문에 음악에서 풍기는 무엇인가도 분명히 있을 거다.”

12월 서울에서 30년 전 연주했던 곡을 무대에 올린다.

“베토벤 소나타 28번인데 30년 전에는 일단 단단하게 쳐야 된다, 리듬이 안 부서져야 한다 이런

걸 신경썼다.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한다. 1악장에서는 노련하게 과거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시작해서 4악장에서는 완전히 자유가 느껴져야 하는데 예전에는 너무 압박을 하고 있었다. 흐트러짐 없는 연주로만 승부를 보려했던 것 같다. 젊을 때는 안 틀리면 잘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잘못된 거다.”

그럼 어떤 기분이 들었을 때가 좋은 연주인가.

“어떤 음악이 나올지를 나도 모르고 따라갔을 때다. 계획한대로 하긴 하지만 무대에 올라가면 벗어나 자유로워야 한다. 연습도 달라졌다. 손가락을 제자리에 놓기 위해서 뿐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자유롭게 튀어나오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 연습을 한다.”

콩쿠르 입상, 대학 교수, 유명한 연주자.... 30년동안 다 해본 것 같다.

“제일 이해안되는 게 행운과 실력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다. 서울대 있을 때도 주위에 교수라고 에헴 하는데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많았다. 우리 애들한테도 그거 하나는 확실히 가르친다. 어떤 위치에 있을 때 너 자신한테 솔직해야 된다. 진짜 최고라서 그 위치에 있는 건지 아니면 운이 좋아서인지. 보통은 운이 좋아서이지 않나. 또 유명해서 어디에서 사람들이 알아보면 실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 유명하고 어떤 위치에 있고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거고, 끝없이 노력하는 거 없이는 죽은 인생 아닌가 싶다.”

겉으로 보기엔 이제 다시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된 것 같다.

“내 장점이자 단점이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면 더 의심을 많이 하고 불안해 하는 거다. 지금도 그런 시기인 것 같다. 앞으로 피아니스트로 3막을 열게 될 것 같은데 음악으로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고 싶다. 음악에 대한 봉사가 될 수도 있고, 여건이 주어지는 대로 다 시도해보고 싶다.”

백혜선은 최근 연40회 정도 국내외 무대에 서고 있다. 2018년부터는 베토벤의 모든 소나타(32곡)와 협주곡(5곡)을 나누어 연주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12월 8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데뷔 30주년 기념 독주회에서도 베토벤의 후기 소나타를 연주한다. 내년 뉴욕에서 협주곡들을 연주하고 나면 베토벤 전곡 프로젝트가 끝이 난다.

글 | 김호정
중앙일보 기사 발췌

CHRISTMAS WITH RICHARD YONGJAE O'NEILL

◆ 리처드 용재 오닐 ◆

선물



2019 크리스마스 콘서트

리처드 용재 오닐 비올라 | 스테판 피 재키브 바이올린 | 박규희 클래식 기타 | 박종성 하모니카
그리고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

2019.12.25 WED 5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2.24 성남아트센터 | 12.26 세종시 세종문화예술회관

백혜선 | 세계무대 데뷔 30주년 기념

CREDIA

이 프로그램은 Club BALCONY 후원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www.clubbalcony.com에서 공연을 예약한 후원회에 한함]

CREDIA MUSIC & ARTISTS

CREDIA
INTERNATIONAL

CREDIA
ENTERTAINMENT



www.credia.co.kr



CREDIA Music & Artists 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 Music & Artists 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 Music & Artists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크레디아 페이지(www.credia.co.kr)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REDIA Music & Artists

www.credia.co.kr